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 성금 200만원 기탁

이형동 기자 | 승인 2024.12.19 11:58

지역 취약계층 위해 희망2025나눔캠페인 동참



▲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 이돈문(오른쪽) 지사장이 이병환 성주군수에게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성금 200만원을 기탁하고 있다. 성주군 제공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가 지난 18일 성주군을 방문해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성금 200만원을 기탁하며, 희망2025나눔캠페인에 동참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는 2019년 이후 희망나눔캠페인, 코로나19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성금 기탁 등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경북공동모금회를 통해 성주군 내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이돈문 지사장은 “추운 겨울날씨와 코로나 이후 경기침체 등으로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는 이때 힘이 되어주고자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농어촌공사 성주지사의 꾸준한 관심과 지속적인 나눔이 지역사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성금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잘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형동 기자 hd60lee@naver.com